

■ 광주 미술품 경매 시장 '영아트 페어 오픈옥션' 열려

“출품 번호 11번... 낙찰!”

“출품번호 11번 도수연씨의 ‘산선암’입니다. 시작가 30만원부터 5만원씩 호가하겠습니다. 예, 3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럼 35만, 35만, 35만 없습니까. 예, 6번 응찰자 35만 있습니다. 그럼 40만 없습니까. 40만, 40만 이번 작품은 35만원에 6번 응찰자에게 낙찰했습니다. 축하합니다.”

20일 ‘영아트 페어 광주 옥션’이 열린 광주롯데호텔. 서울 지역 경매 회사인 ‘오픈옥션’ 김정아 경매사의 포랑한 목소리와 활달한 제스처가 응찰자들의 눈과 귀를 단번에 휘

소 어색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김정아 경매사는 “광주에서 옥션이 자주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응찰자들이 다소 낯설어 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 다양한 미술 경매 행사가 진행된다면 경매장 분위기가 한층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구입을 희망하는 그림과 추정가를 살핀 뒤 주위 사람들과 작가에 대한 평판, 작품의 예술성에 대해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는 등 미술에 대한 깊은 관



20일 ‘영아트 페어 광주 옥션’이 열린 광주롯데호텔에서 경매사 김정아(사진 왼쪽)씨가 한 응찰자에게 작품 낙찰을 통보하고 있다.

/위직기자 jrwi@kwangju.co.kr

(이하 특성화사업단)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내년부터 매년 2~4회씩 미술품 경매회, 대학, 갤러리 등이 참가하는 미술품 경매행사를 꾸준히 개최할 계획이다.

미술인들의 창작의욕을 북돋우고 잠재된 지역 미술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술품 경매행사를 꾸준히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대 문화예술특성화사업단·오픈 옥션 주최

응찰자·관람자 60여명 경매 체험 진지한 분위기  
“미술시장 활성화 위해 경매 행사 꾸준히 개최”

어잡았다. 지역 작가들의 작품 49점이 출품된 이날 경매에는 20여명의 응찰자를 비롯해 60여명의 관람객들이 참가, 지역에서 모처럼 열린 미술품 경매를 체험했다.

도수연씨의 ‘산선암’을 낙찰받은 양승문(42)씨는 “서울에서만 열리는 줄 알았던 미술품 경매를 경험하고 작품까지 구입함으로써 색다른 추억을 갖게 됐다”며 “미술품 경매행사가 지역에서도 자주 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가한 지역 미술애호가들과 미술 관련 학과 학생들은 이날 경매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서도 선뜻 경매에 나서지 못하는 등 다

심을 나타냈다.

이날 경매행사에 출품된 작품이 모두 49점이었지만 응찰된 작품은 15점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이런 반응은 어쩌면 ‘담연’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픈옥션 이금룡(55) 대표는 “이번 경매에서 활발한 거래를 기대하는 것보다 광주에서 미술경매가 열렸다는 데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며 “광주 지역 미술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공서와 기업들이 앞장서서 미술품을 구입하는 등 미술문화에 이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아트 페어 옥션’을 주최한 전남대학교 문화예술특성화사업단

무형문화재 합동 예능 발표회  
22일 광주시민회관

광주시 지정 무형문화재 합동 예능 발표회가 22일 오후 1시 광주시민회관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에는 ‘춘향가’의 방성춘, 노민아씨 등 보유자, 전수자, 이수자들이 참여,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주요 내용은 관소리 ‘수궁가’, ‘춘향가’, 시조창, 가

광주동성여중 관현악 연주회  
21일 광주학생문화회관

광주동성여중(교장 강익선) 제10회 정기연주회가 21일 오후 5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장준수·이선경씨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관현악 합주로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을 들려주며 현악합주로 ‘황가리안 댄스 5번’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136’ ‘환여름밤의 꿈’ 중 ‘결혼 행진곡’을 선사한다.

또 관악합주곡 ‘아프리카 심포니’를 들려주며 학부모합주단이 특별출연해 ‘문리버’, ‘신고산 타령’ 등을 플루트와 클라리넷 중주로 연주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오방색, 꽃과 여성의 이중주

한국화가 임종두씨 개인전  
23일~12월3일 예향화랑

직선으로 형상화한 중성적인 여성의 이미지. 서양화의 색감을 연상시키는 화려한 오방색으로 칠해진 화면. 화사한 꽃과 여성의 이중주. 원초적인 색감을 자극하는 오방색으로 독특한 미감을 선보이고 있는 한국화가 임종두씨가 예향화랑에서 23일부터 12월3일까지 지역 관람객들을 만난다.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씨의 고향 전시회는 2001년 이후 6년만이다.

임씨는 자신의 작품 ‘초충도’, ‘화조도’, ‘죽도’ 등 5점이 LG화학의 벽지 디자인으로 채택되는 등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젊은 작가. 작업 초기 사회비판적 메시지를 담아냈던 임씨는 이번 전시에서 여인과 꽃, 새 등을 통해 절정에 이른 삶의 환희와 아름다움을 선보인다.

그의 화풍에 등장하는 꽃과 여인은 화려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하지만, 종국에는 사라질 대상이라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그려진다. 작품 속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 꽃, 물고기 등은 캔버스에서 한데 어우러지며 조화로운 삶을 꿈꾸는 화가의 열원을 담고 있다.



‘삼합(三合)’

김백균 중앙대 한국화와 교수는 “화사하고 아름다운 그림 뒤에 보이지 않는 슬픔은 임씨가 써주고 있는 실체다”며 “그가 그리고 있는 것은 생로병사에 대한 위기의식과 안타까움이다”고 설명했다.

전남대학교를 졸업했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 대상, 한국현대미술제, 한국미술정예작가전, 세계로 가는 한국미술전 등 다수 단체전에 출품했다. 문의 062-225-0049.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웃음폭탄... 폭소 100분

국민 연극 ‘라이어’ 광주 공연... 25일까지 5·18기념문화관

연극 보는 내내 배꼽 잡고 웃고 싶다면 주저 없이 이 작품을 보라. 공연 횟수 3천회에 80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국민 연극’으로 불리는 파과 프로덕션의 ‘라이어’가 광주 공연을 갖는다. 25일까지 평일 오후 7시30분, 주말 오후 3시·7시 5·18기념문화관.

주진모·공형진 주연의 영화로도 만들어진 연극 ‘라이어’는 관객이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씩씩 웃음 폭탄을 날리는 정통 코미디 연극이다.

주인공은 ‘두 집 살림’ 하는 택시 운전사 스미스, 바바라와 메리라는 두 부인을 두고 정직한 스케줄에 따라 이중 생활을 하던 스미스의 광우했던 일상은 강도 사건에 휘말리면서 혼란을 겪게 된다.



면서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이어진다. 이 작품의 묘미는 배우들의 완벽한 호흡이 만들어내는, 시종일관 우스꽝스러운 상황들이다.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으면 상황은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들고 이런 모습들이 관객들에게 끊임 없이 웃음을 준다.

이재원·이석호·김현정·허은·노진원·강진휘 씨 등이 출연한다. ‘라이어’의 흥행 성공에 힘입어 ‘라이어 20년 후’ ‘튀어’ 등의 작품도 제작됐다. 12월에는 이중 ‘라이어 20년 후’가 공연될 예정이다. 주말 3만 5천원, 2만 5천원, 평일 3만원, 2만원. 문의 1544-041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희망 2008 나눔캠페인 추진대회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오늘 순천대 우석홀서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송영수)는 21일 오후 1시30분 순천대학교 우석홀에서 ‘희망 2008 전라남도

나눔캠페인 추진대회’를 개최한다. 매년 12월에서 다음해 1월까지 두 달 동안 펼쳐지는 모금 캠페인에 앞

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송영수 회장을 비롯한 노관규 순천시장, 순천대학교 장만채 총장 등 관계자 500여 명이 참가해 올해 모금운동의 자을 참여 분위기 확산에 앞장설 예정이다. 행사에 앞서 도입국악단의 공연이 준비돼 있다. 문의 062-651-1214.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A large advertisement for movie theaters. It features a banner at the top with 'Happy Time 영화안내' and several theater logos: 메가박스, 엔터시네마, 콜롬버스시네마, 씨너스전대, 무등극장, and 제일시네마. Each theater lists its address, phone number, and a selection of movies with showtimes and prices. For example, 메가박스 lists 'M관 세븐데이즈 (12시/18시) 최고급관' and '2관 식객 (12시/18시) 베오울프 (15시)'. 씨너스전대 lists '1관 스카우트 (12시) / 색, 계 (18시)' and '2관 마을금고연쇄습격사건 (15시)'. 무등극장 lists '1관 궁녀 (18시)' and '2관 바르게 살자 (15시)'. 제일시네마 lists '1관 식객 (12시)' and '2관 세븐데이즈 (18시)'. The bottom of the ad features movie posters for '골든에이지', '스카우트', '리비앙로즈', '세븐데이즈', and '쏘우4'.